

2020 인천 다문화교육 발전 방안 토론회

- 일 시: 2020.12.18.(금) 15:00~17:30 (150분)
- 방 법: 유튜브 생중계



주 관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BK21FOUR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후 원



한국연구재단



2020 인천 다문화교육 발전 방안 토론회 일정

□ 운영 개요

- 일시: 2020.12.18.(금) 15:00~17:30 (150분)
- 방법: 유튜브 생중계
- 주제: 인천 다문화교육 발전 방안 모색
- 대상: 희망하는 교육 가족 모두
- 주관: 인천시교육청,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BK21FOUR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 후원: 한국연구재단
- 참여방법: 온라인 참여신청(사전 질문 작성 가능), 유튜브 생중계 시청 및 실시간 채팅창을 활용한 질의

| 구분 | 일시(기간) | 바로가기 URL | QR코드 |
|----------------------------|-------------------------------|---|---|
| 온라인 참여 신청 | 2020.12.11.(금) ~12.17.(목) | http://2zt.kr/2293 |  |
| 유튜브 생중계 시청 및 실시간 채팅창 참여 | 2020.12.18.(금) 15:00~17:30 | http://gg.gg/ngfq5 |  |

| 순서 | 시간 | | 내용 및 담당자 |
|------|-------------|-----|---|
| 여는 말 | 15:00~15:05 | 5' | 사회자: 구자 (인천시교육청 장학관) |
| 영상축사 | 15:05~15:10 | 5' | 인사말: 도성훈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축사: 박찬대 (국회의원) |
| 소개 | 15:10~15:15 | 5' | 사회자 - 좌장,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좌장: 김영순 (인하대학교 교수) |
| 발제 | 15:15~15:55 | 40' | 주제발표 1. 다문화사회와 다문화 교육의 방향 - 성상환 (서울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2. 다문화 밀집학교 및 공립다문화 대안학교 발전 방향 탐색 - 유충열 (인천교육연수원 교육연구관) |
| 종합토론 | 16:00~17:30 | 90' | ▶ 장은영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김진희 (부천상호문화학당 대표) ▶ 박봉수 (디아스포라연구소·고려인문화원 대표) ▶ 유혜경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 ▶ 강석희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 주명희 (인천사리울중학교 학부모) - 상호토론자 질의응답 - 실시간 질의응답: 유튜브 채팅창 활용 (교육 가족 중 희망자) |
| 폐회 | 17:30~ | | 마무리 |

CONTENTS

| | |
|------------------------------------|----|
| 다문화사회화 다문화 교육의 방향 | 9 |
| 서울대학교 교수 성상환 | |
| 다문화 밀집학교 및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발전 방안 | 19 |
|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교육연구관 유충열 | |
| 인천 다문화교육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문 | 37 |
|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장은영 | |
| 인천 다문화교육 다시 한 번 도약을 꿈꿔야 할 때 | 45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유혜경 | |
| 인천형 통합 다문화 교육 또 다시 위대한 한걸음 | 61 |
| 인천사리울중학교 학부모 주명희 | |
|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문제해결 방안 | 67 |
| 디아스포라연구소/인천고려인문화원 대표 박봉수 | |
| 인천 다문화교육 발전 방안 | 73 |
| 부천상호문화학당 대표 김진희 | |
| 2020 인천다문화 교육에 대한 단상들 | 81 |
|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강석희 | |



다문화사회와 다문화 교육의 방향



성 상 환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다문화교육학회장



다문화사회와 다문화 교육의 방향

성상환 (서울대 교수, 한국다문화교육학회장)

1. 다문화교육은 어떤 개념인가?

다문화교육은 어떤 개념인가? 이것은 인구 구성비에 근거한 학교 제도개혁에 대한 접근성과 평등성, 사회적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일종의 교육적 실천운동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교육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서로 이질적인 배경과 상이한 문화에 기반을 둔 집단들을 주목한다. 이러한 이질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단들의 주요한 원칙과 개념, 그리고 목표 등과 같은 범주 내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존재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민족적 배경이나 인종적으로 다양성을 지닌 국가와 사회, 그리고 현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태도, 그리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목표라는 관점에서 인천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노력을 높이 살 만 하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이 다문화가정아동이나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시각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많은 경우 다문화교육이 아니라 보다 선진화된 상호문화교육적 접근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다문화교육의 핵심 개념과 가치를 오해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사용되는 다문화교육이란 개념은 현재 국제적인 학술차원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으며 다문화교육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상호문화교육을 제시하는데 이것도 학술적인 개념 정리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다문화교육에서도 글로벌차원에서 여러 갈래의 연구경향과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한 비판적 교육운동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 다문화교육의 가장 큰 가치들에는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성(equity), 다양성(diversity),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과 사회정의(social justice)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다문화교육의 학자들과 교사들을 포함하는 교육운동가들은 위의 가치들을 공유하며 학교와 교육과정 등 교육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개혁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집단

들에 속한 구성원들의 교육적인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고, 포괄적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또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문화생태계 안에서 다문화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교육은 학생들에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생태계와 생태적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지식, 기술 그리고 문화적인 자본만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민주적 공동체 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경험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문화교육 운동가들은 교과를 중심으로 한 학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지만 이것들만 가지고는 (인종적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현 시점의 국가와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질로서는 충분치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우리사회에서 학생들이 한국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일반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질들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점차 다원화되는 사회와 다양한 그룹들 안팎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성찰적인 시민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학교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그룹들 간의 깊고도 끊임없는 사회적 분화를 언급하며, 포괄적이고 변화된 주류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문화교육자들은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동화를 통해서 극복되어져야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통합적 차원의 문제로 간주한다.

2. 한국의 다문화교육과 방향성: 이중언어교육

이러한 글로벌차원에서의 다문화교육의 흐름을 검토했을 때 현재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학생을 미래의 인재로 양성하려는 관점에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인천시의 공교육이 직면한 현실을 직시했을 때 어쩌면 한편으론 이주민과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밀집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론 공립 다문화대안학교의 운영에도 다양한 방향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은 인천시가 한국 다문화교육의 미래 방향성을 주도적으로 제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지원정책을 보면 ‘강점개 발을 통한 우수인재 육성’이란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중언어교육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공교육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도입국자녀들의 경우 이들이 가진 외국어능력이나 문화적 자산을 지속적으로 학교의 교과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방안이 필요한데 학교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인천시의 경우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밀집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

의 학교들의 경우 공교육과 제도적 차원에서 교육수요를 파악한 후 국제화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아동이나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들/청소년들의 이중언어교육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아동의 언어 발달 단계에서 학령기 이전 시기에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며, 언어 발달을 바탕으로 인지적·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결혼이민자 중 여성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문화가족의 대부분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한국어를 바탕으로 한 언어·문화적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주가 늦은 아동들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이 필요한 학생’으로 파악하여 한국어교육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또는 아버지)가 외국 출신인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부모 중 한 쪽의 언어나 문화를 제대로 접하지 못할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의 균형 있는 언어적·인지적·정서적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의 건강한 정체성 발달을 위해 부모와 학교가 일찍부터 협력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는 예를 들어, 일종의 디딤돌학교로서의 인천한누리학교의 존재가치는 부정할 수 없다.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들에 대한 이중언어교육지원은 아동의 인지적 발달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데 현장에서 그에 대한 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중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이중언어교육이 아동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인지적 발달을 가져 오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중언어교육과 관련하여 아동들의 인지과정에는 한 개의 언어만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다중적인 인지적 체계성이 발견되기도 한다. 언어 간에는 객관적 경험을 해독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언어 사용자들은 주어진 경험을 자신이 사용하는 해당 언어에서 제공하는 범주에 맞춰 독특하게 구별하거나 재구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지과정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지하는 차이점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언어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언어적 차이들은 사람들의 경험에서 항상 눈에 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묘할 수도 있지만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에게는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이 모국어가 아닌 제 2언어를 학습할 때 이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되도록이면 비슷하게 해당 경험을 관찰하고 코드화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언어로 자라는 아이들은 이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자면, 학습자의 모국어와 관련하여 제 2언어의 몇 가지 현상들은 수렴되지만 몇몇은 분산된다. 수렴하는 현상은 모국어에서는 두 개 이상의 기호로 나타

나는 지시물이 제 2언어에서는 더 작은 수의 기호로 수렴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분산되는 현상은 반대의 경우로, 즉 제 2언어가 제 1언어보다 더 많은 수의 기호와 이에 상응하는 의미론적 구분을 갖고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언어 학습자들은 이런 두 가지 현상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화자일 때는 분산하는 것이 아마도 더 중요할 것이며, 반면 수렴하는 것은 청자일 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우는 독일인 사용자는 자동적으로 그가 영어의 'go' 를 코드화할 때 여행의 방법을 말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다. 만약 그가 이런 발산(divergence)하는 차이를 배우지 않았다면 아마도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 영어를 배우는 독일어 사용자는 영어의 수렴(convergence)하는 차이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가 여행 방법에 관해 특별히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싶지 않을 때는 동사 'go' 형태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독일어에 해당하는 동사 'gehen' 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여행 방법과 관련하여 'go' 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영어 화자를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영어와 독일어의 구조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인지상의 수렴적이면서도 발산적인 논리적 사고를 해당 언어를 배우는 아동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동적으로 습득하게 되며 단일어만 사용하며 성장하는 아동들은 접근하기 힘든 인지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언어교육의 중요성은 작년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정책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학교 내에서 체계적인 교과차원의 지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다문화교육에서 이중언어는 활용도가 아주 높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시의 경우 이중언어 수업을 공립대안학교와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한국학생들과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중국어나 러시아어, 아랍권 언어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한국학생들이 다문화밀집지역 학교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수요가 많은 영어교육을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한국의 일반 학교들과 비교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그 다음 차원에서 해당 학교의 수요에 기반한 제2외국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초등단계에서도 이러한 국제성을 강화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중등단계에서도 일반한국 학생들과의 통합된 교육체제를 유지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타 일반한국학교들과는 차별화 되는 프로그램들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영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들에 대해 전공교사의 수급이 힘들 경우 ZOOM 같은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프로그램의 개발에 교육적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고교학점제가 실시됨으로 외국어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4차산업혁명시대, AI 시대에 적합한 첨단 기술교

과목들의 개설도 필요하다. 사실 미래에 새로이 창출될 직업들은 정규 대학교 고등교육 졸업장이 필요없는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첨단 기술교과목들과 더불어 단체로 이루어지는 스포츠활동이나 예술교육 등이 강화되고 융합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제도권인 학교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교육은 부모들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영역은 부모의 학교-마을공동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집안 내에서 아이들의 언어발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이러한 노력에 사회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많은 경우 다문화가족 내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사용에 대한 한국인 배우자 및 가족들의 태도는 부정적이어서, 학교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가정 내 지원 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선 적극적인 다문화 인식개선의 노력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족들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3.5% (남성 37.1%)에 불과하며, 영어나 일본어가 아닌 비주류 언어 사용 국가 출신의 모국어 사용에는 특히 더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밝혀져 있다(정해숙 외, 2013).

이상을 고려할 때,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의 다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언어적·인지적·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위한 가정 내 이중언어 환경조성과 관련한 지속적인 교육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는 이중언어교육 지원사업 같은 분야에서는 교육부와 여가부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본다. 작년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지원정책을 보면 이중언어학습 장려를 위하여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개최와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책 형태의 이중언어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는 소극적인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사실 더 나아가 학교교육과 연결된 이중언어교육이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미국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출신어 지원기간 및 집중도와 제2언어 습득의 성공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언어지원과 다른 과목의 성적 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요컨대,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다년간 해당언어를 매개로 모든 수업을 한 경우이다 (Thomas/ Collier 1997 참조).

특히 초등 입학 때부터 전 학년 내내 이주배경을 가진 부모 한쪽의 수준 높은 교양언어를 동시에 학습하는 일이 중요하다. 부모의 출신어 말하기 능력은 수준 높은 언어능력을 획득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반면, 읽고 쓰기(문어)학습은 제2언어 능력의 향상을 가져온다(Verhoeven 1994 참조).

출신어 수업의 교수법적인 면에서는 언어 자체를 가르치는 언어수업보다 비언

어 영역 과목에서 수준 높은 내용을 다루면서 언어습득을 병행하는 내용중심 수업/학습(contents-based learning)이 더욱 성공적이다.

또한 입학 초기의 개개인의 언어수준에 따른 언어능력의 확립을 위해서는 각 과목에서 습득되는 전문어와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양어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복잡해지고 추상화되기 때문에 출신어 수업기간을 5-10년은 잡아야 한다 (Thomas/Collier 1997).

한국의 다문화교육정책은 더욱 적극적인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국제화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 국제교육특구를 과감하게 다문화학생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선주민과 이주민의 통합을 유도할 수 있고 자율적인 교과과정을 운영해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방법이 다문화가정학생들이나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3. 통합교육을 위한 교과목개발

현재 인천뿐만 아니라 안산이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밀집하는 지역을 보면 일반 한국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다문화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들이나 공립 다문화대안학교들의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하에 교과목들을 고도로 매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고비용의 사교육에 기반을 두거나 사교육에 의존도가 심한 한국의 가정들과 비교하여 고등교육에 접근하는 방식을 다양화시키거나 일찍 고급화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직업교육들은 새로이 출현하는 4차산업과 관련된 진로교육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글로벌 한국사회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맞는 직업들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매일경제 2018. 9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사회의 직업 7대 트렌드

| 구분 | 직업 발전 |
|--------------|---|
| ① 초연결 초지능화 | 인공지능·지능형 로봇·사물인터넷·바이오기술·빅데이터 등 관련 전문가의 성장 |
| ② 저출산 고령화 |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직업의 발전 |
| ③ 글로벌화 | 수송·항공·국제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관련 직업 등 |
| ④ 자원경쟁·지구온난화 | 재생에너지와 환경 관련 직업 |
| ⑤ 소비의 고도화 | 건강·미용·오락·취미 등 일상생활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등장 |
| ⑥ 위험의 일상화 | 안전·보안 관련 산업과 직업의 성장 |
| ⑦ 하이터치의 시대 | 예술·영상·오락·여행·식품 및 외식·콘텐츠 관련 직업의 발전 |

| | | | |
|-----------|-----------|-------------|-------------|
| 로봇공학자 | 인공지능전문가 | 무인자동차엔지니어 | 드론전문가 |
| 로봇윤리학자 | 정보보호전문가 | 사물인터넷전문가 | 사이버평판관리자 |
| 클라우드펀딩전문가 | 빅데이터전문가 | 클라우드시스템엔지니어 | 우주항공공학자 |
| 블록체인전문가 | 스마트재난관리자 | 지식재산전문가 | 신개성에너지전문가 |
| 지식재산전문가 | 기후변화대응전문가 | 스마트그리드엔지니어 | 태양에너지기술자 |
| 게임개발자 | 문화콘텐츠전문가 | 드론콘텐츠전문가 | 개인미디어콘텐츠제작자 |
| 게임방송프로듀서 | 디지털규레이트 | 스마트팜구축자 | 스마트도시전문가 |
| 스마트의류개발자 | 도시재생전문가 | 가상현실전문가 | 홀로그램전문가 |
| 3D프린팅전문가 | UX디자인컨설턴트 | 증강현실전문가 | 핀테크전문가 |
| 코딩전문가 | | | |

다문화 밀집학교 및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발전 방안

유 충 열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교육연구관



다문화 밀집학교 및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발전 방안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교육연구관 유충열

1. 토론 열기

다문화 학생의 급속한 증가는 인천교육에 위기와 기회를 모두 안겨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적 측면에서 본다면 인천교육이 동아시아를 품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학생은 학생 외교관으로 우리 인천이 동아시아 국가와 연대하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먼저 온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중한 인적자원인 다문화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발제자는 인천 다문화교육이 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문화 밀집학교와 공립다문화학교인 인천한누리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문화 학생 현황과 시사점, 발전 방안입니다.

2. 다문화 학생 현황과 시사점

가. 다문화 학생 현황¹⁾

다문화 학생 수 8,852명으로 다문화 학생 비율이 2.9%입니다. 다문화학생 재학교 비율은 537교 중 495교에 재학하고 있어 92.2%에 이릅니다. 전년 대비 다문화 학생 증가율을 보면 2019년 7,914명에서 2020년 8,852명으로 11.9%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5.9%보다 높습니다.

학교 급별 증가율을 보면 초등학교 8.4%, 중학교 23.6%, 고등학교 18.3%로 초등학교 학생의 진학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2020 인천광역시교육청 통계자료

특징은 외국인가정자녀의 증가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치구별 다문화 학생 비율 순위를 보면 1위 부평구(1,581명, 20%), 2위 서구(1,410명, 17%), 3위 남동구(1,321명, 16%)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도 입국 학생 수 비율 순위는 1위 남동구(112명, 19%), 2위 부평구(106명, 18%), 3위 연수구(102명, 17%)입니다. 외국인 학생 수 비율 순위는 1위 연수구(741명, 37%), 2위 부평구(452명, 13%), 3위 남동구(259명, 13%)입니다. 공단지역(부평, 남동, 연수구)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이 형성되고 인근에 있는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밀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한누리학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한누리학교는 중도입국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 중 일반학교 진학 및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학교생활적응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13년 3월1일 정원 225명으로 개교하였으며, 학급 수는 15학급으로 초등학교 6학급, 디딤돌 1학급, 중학교 5학급, 고등학교 3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11월 기준 학생 수는 105(정원 225명/ 46.6%)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미 수료한 학생을 포함하면 누적 학생 수는 168명입니다. 교육기간은 일반학교에 원적을 두고 입교(수시), 초등 1학기, 중등 2학기이며, 재위탁 기간 포함하면 초등 최대 2학기, 중등 최대 4학기까지 재학할 수 있으며, 학교자체 졸업제도가 없습니다.

학생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러시아권, 아랍권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누리학교는 전국단위로 위탁학생을 받고 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탁수요가 있습니다. 주말 기숙사 미운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원거리 타시도 학생 유입은 소규모입니다. 한누리학교 교육과정은 기본과정(50%), 특성과정(50%)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성화교육과정은 학력신장(한국어), 진로과정(진로교육, 컴퓨터, 문화이해), 다문화 과정(태권도, 은율탈춤,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한누리학교와 같이 위탁형 대안학교로는 지구촌학교, 광주새날학교 부산아시아 공동체학교 등이 있습니다. 이중 공립형은 인천한누리학교가 유일합니다. 기술계 다문화학교로는 서울다솜학교, 한국폴리텍다솜학교가 있습니다.

인천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천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조례에 따라 2018년에 설치되어 현재 사무실은 인천한누리학교에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한 4명의 직원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다문화교육 관련 교수·학습 및 교직원 연수 지원, 3)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서비스 및 정보 제공, 4) 그 밖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밀집학교 현황입니다.

다문화 학생 비율 20% 이상인 학교를 살펴보면 문남초 35.4%, 함박초 28.4%, 십정초 23.2% 등이 있습니다.

이주배경이 같은 다문 가정의 특정지역으로 밀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연수구는 선학동을 중심으로는 러시아와 고려인 중심, 옥련동은 아랍권, 부평은 난민 중심으로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화도나 부평은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연수구는 외국인 노동자 가정이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다문화 가정은 경기도 안산이나 서울 대림동 같이 밀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소결>

지금까지 인천 다문화 학생 및 교육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천의 다문화 증가 속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높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천의 거의 모든 학교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다문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문화 대안학교인 인천한누리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학생이 밀집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 시사점

다문화 학생 현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인천다문화교육 방향에 대한 검토입니다. 다문화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방향은 어떠해야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둘째, 인천한누리학교의 발전 방향입니다. 2023년에 1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인천한누리학교는 다문화학생 교육에 대해 그동안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변화하는 다문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마련해야 할 시기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셋째,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검토입니다.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설치한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넷째, 다문화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과 발전 방향입니다. 인천의 특정지역의 학교로 다문화 학생이 밀집되고 있어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과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발전 방안

위에서 살펴본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및 한누리학교 발전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 다문화 교육방향

다문화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천의 다문화 교육방향은 어떠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화적 관점에서 벗어나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관점이 정립되어야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모국어와 모국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동등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는 다문화 학생이 모국어와 모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말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아시아시민으로서 나아가 세계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다문화 학생도 학교에서 위축되지 않고 학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통합교육을 기반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문화교육은 예비학교, 특별학급 중심학교, 정책학교, 다문화 대안학교, 한국어학급 등 선 분리 후 통합교육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수교육의 경우, 분리교육에서 시작하여 물리적 통합(mainstream), 선 분리 후 통합(integration), 모두를 포함하는 통합(inclusion)으로의 단계를 거쳐 새로운 특수교육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에서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인천한누리학교학교 발전 방향

다음은 인천한누리학교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천한누리학교를 국제학교로의 전환

인천한누리학교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국제학교(가칭)로 전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학교의 명칭 변경, 통합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통합교육을 위한 일정비율의 비다문화 학생의 위탁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명칭을 인천한누리국제학교로 명칭을 변경²⁾하는 것만으로도 다문화학생이 다니는 학교라는 편견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문화 대안학교에 국제학교의 명칭을 쓰는 사례가 많으며, 뷰티예술고등학교, 인천미래생활과학고 등 명칭 변경으로 학교 수가 증가한 사례가 있음

초등학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초등학교는 한국어 습득이 빠르고 원적교 적응력이 중·고등학교보다 높으며,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중학교는 다국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모국어와 모국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한국학생이 참여하여 학습합니다. 기본교과는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이 함께 수업을 진행합니다. 1학기 동안 진행하는 프로젝트 학습을 특별로 실시합니다. 한국어가 필요한 다문화 학생은 수준별 한국어 수업에 참여합니다.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은 학생은 방과후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사이버랭귀지스쿨, 세종학당에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인천한누리학교 학생들은 다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등학교는 직업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모국어와 모국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한국학생이 참여하여 학습합니다. 기본교과는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이 함께 수업을 진행합니다. 대안교육과정은 다국어 전문가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과정, 예술체육과정, 컴퓨터미디어과정, 동아시아문화큐레이터과정, 글로컬 과정 등을 선택과정으로 수강하게 합니다. 일반학교의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의 동아시아 문화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이 있다면, 한누리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합교육을 위한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는 5% 내외,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0%내외의 비다문화 학생을 선발하여 다문화 학생과 함께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문화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함께하는 수업을 통해 상호이해 증진은 물론 상호 배움의 과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최근 들어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학생을 분리하여 교육하기보다는 비다문화 학생과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1년 3월 경기도 시흥에 군서미래국제학교를 개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학교는 다문화와 비다문화 학생을 50:50으로 선발하여 무학년 수준별수업을 실시하는 초·중·고 통합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미 중학교 과정은 선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학교를 다문화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천한누리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면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는 중학교에서 학생을 위탁받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평가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법도 권장해 볼 수 있습니다.

2) 인천한누리학교 내 다문화 교육연구소 세종학당(가칭) 운영

인천한누리학교는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 모델로서 그동안 많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의 다녀갔고, 시·도교육청 다문화학교설립에 표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학교방문, 예비 교사들의 실습활동, 한국어교육 전공자들의 체험 및 실습, 인천 전체 학생들 대상 진로프로그램 운영지원, 한국어 캠프, 전국 및 인천시 다문화 축제 지원활동,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다국어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학생 긴급 지도에 필요한 이중 언어 강사지원 등 교사의 수업 외 지원활동이 다른 학교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누리학교 내 다문화 교육연구소(가칭 세종학당)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세종학당은 지금까지 한누리학교가 개발해온 많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를 일반학교에 보급하고, 연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종학당에서는 연구뿐만 아니라 사이버 한국어 스쿨과, 레벨별 랭귀지 스쿨을 상설화 하여, 다문화 가정과 학생이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교육을 상시적(방과 후, 주말, 방학 중)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세종학당에는 자발적 연구자 및 학습연구년 연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어 강사로 하여금 단계별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한누리학교 교사는 희망자에 한해 한누리학교 근무 기간 동안 다문화교육 연구자로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연구 점수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3) 학교발전위원회 설치

한누리학교는 대안학교로 교원평가 비대상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없으며, 학부모회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발전을 위한 노력은 오직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학교에 대한 헌신적 노력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학교가 노력해야 할 일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부 의견을 청취할 기회와 더불어 학부모의 요구 및 학교운영에 관한 논의의 창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발전위원회 설치에 다문화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 위원과 내부 위원으로 구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 학교 평가를 통해 학교의 노력 정도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학생 정원 유지 방안

한누리학교가 다문화 대안학교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고 인근 다문화 밀집 학교의 부담을 덜어 주려면 최소 정원의 80%(학급당 12명) 정도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누리학교는 정원의 50% 내외로 유지하고 있어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도입국자 수시 위탁 및 수료로 인한 원적교 복귀 등으로 공백이 불가피한 면도 있으나 한누리학교가 정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탁 기간을 충실히 지키고 학기 말에 원적교로 복귀하도록 합니다. 한국어 기초부진이나 입국 초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원적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와 MOU체결 및 수시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밀집학교와 위탁학교의 현재 학생 현황을 수시로 교환하여 중도입국 학생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위탁 해지 시에는 원적교의 담임교사, 상담교사가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통해 원적교 적응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또한 한누리학교에 한국어 학급 강사비의 충분한 지원으로 학생 정원 유지에 따른 수업 부담을 줄여줍니다.

5) 우수교사 확보 방안

교사는 현행대로 우선전보를 실시하되, 학습 연구년제(다문화교육분야)와 연계하여 6개월~1년 전 사전 선발을 통해 해당 국가의 문화 및 다국어 교육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사 선발 시, 다문화 관련 감수성 및 인성 평가 결과 등이 중요한 선발 관점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상설 연구학교를 지정하거나, 다문화 관련 특별 연구교사 설발, 특수지 가산점 부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결>

지금까지 인천한누리학교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천한누리학교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인천한누리국제학교(가칭)”로 전환 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동아시아 인재를 꿈꾸는 학생들이 입학하고 싶은 학교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아시아를 이끌어갈 리더를 기르는 교육 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둘째, 다국어 학습 기회의 장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다문화 학생 중 다국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한국어 습득 희망하는 다문화 학생이 자연스러운 대면을 통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동아시아시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학교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운영, 일반고 동아시아 관련 전공 학생들과의 학점 교류, 특성과 고등학생의 다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현재 한누리학교의 학생 정원을 확보하여 안정적 학교운영이 가능합니다. 한누리학교가 비다문화 학생과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해 한누리학교 위상이 제고되어 학생 정원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인천다문화교육지원센터 발전 방안

인천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학교 및 학생지원을 위한 법령개정에 따라 2018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천한누리학교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 상담과, 일선학교의 다문화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으로는 장학사 1명, 상담사 1명, 행정업무 주무관 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시설로는 다문화체험공간, 다문화 도서관, 실습실 등을 갖추고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위치상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용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천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한누리학교 내에 위치하여 학교 시설을 공유(차량, 기숙사, 식당, 교실 공간, 도서관 등 다문화 학습 공간)하고 인천한누리학교의 전문성을 가진 교원과 연계하는 면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기숙사의 일부 시설을 활용하고 있어 독립적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인천교육연수원 세계시민교육부는 학생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파견교사 및 기관배정교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인천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도 기관배정교사 및 파견교사를 배치하여 연중으로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견교사나 기관배정교사는 차후 인천한누리학교나 밀집학교 교사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는 중도입국자, 외국인 자녀가 일반학교 진입 전,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대안교육센터에서는 학교부적응 학생이 대안학교에 위탁하기 전에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한 교육을 3일간 실시한 후 위탁학교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3일간 교육을 수료해야만 위탁학교에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이 끝나면 통학거리 및 학생의 적응 능력과 학교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학생을 배치합니다. 3일간 수료를 하지 못하거나 학부모교육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위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학생관리 및 위탁 학교의 교사 및 강사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도 중도입국자,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 배정 전, 학생 및 학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의 언어능력 및 학부모의 면담을 통해 인천한누리학교,

밀집학교, 언어권별 통합학교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수 언어권 학생은 한누리학교에 배치하여 일선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며, 다문화 밀집학교에도 밀집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천한누리학교에는 동아시아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동아시아 나라별 민속 공예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중언어 강사도 다른 학교에 비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아시아 이해교육 및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말, 방과후, 방학 중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어 학습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번역 자료를 개발·제공하고 통역이나 이중언어교육이 필요한 학교에는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중 언어 강사 및 통역서비스 담당자를 센터에 배치하고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누리학교에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115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보통 25명 내외의 기숙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층을 다문화지원센터와 한누리학교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랍 문화권 학생들은 증가하는데 양질의 아랍어 강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지원센터가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외국어 전공자 및 다문화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교육대학, 사범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생 멘토링제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 다문화 밀집학교 발전 방안

현재 다문화 밀집학교로는 연수구 문남초등학교(러시아권), 함박초등학교(러시아권), 십정초등학교 등이 해당됩니다. 이 지역학교들은 다문화학생 밀집학교라는 인식 때문에 학교 가치의 하락으로 교원 및 학부모들이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 학교들이 차이나타운과 같이 마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합니다.

첫째, 학급 편성을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 비율을 50:50으로 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다문화 대안학교의 기준인 15명 내외로 편성합니다.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 편성은 희망 학생을 선발하여 배치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학급에 소속된 학생은 다문화학생과 같이 교육활동비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1학년 2교사제(담임교사+언어권강사)를 통해 담임의 교육 부담을 덜어줍니다. 교육부지정 기본학력보장 연구학교인 장수초등학교에서는 3년간 1학년 2교사제(담임교사+친친교사)를 활용하여 한글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있으며, 탈북학생 밀집학교에 배치된 탈북코디네이터를 별도 분리교육에 참여시키지 않고 탈북학생이 있는 학급의 수업에 직접 참여하게함으로써 효과를 거둔 사례(송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셋째, 다문화 학생은 모국어와 모국문화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며, 비다문화 학생은 다문화 학생의 언어와 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어느 한 쪽이 소외됨 없이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다문화 통합교육과정 개발 및 수업 자료 보급입니다. 기존 교과서를 통합하여 연계성 있고 지속성 있는 다문화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문화이해 교육에서 벗어나 비판적 사고 및 사회 행동적 접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한국어가 부족한 학생 및 학부모 상담을 위한 통역 기반 상담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아시아국제학교(가칭)로 지정 운영입니다.

다문화 학생의 밀집현상은 보통 부모의 직장 및 여건, 국가별 응집 등으로 발생합니다. 이 밀집도가 심화되면 우리나라 거주자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고 밀집도가 심화됩니다. 이는 다문화 학생이 비다문화 학생보다 많은 역전현상이 일어난 안산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밀집학교 학생들이 진학하게 되면 인근 중·고등학교에 밀집이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통합 교육을 실시하는 동아시아 국제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초·중·고 통합학교로, 다문화 학생의 대다수가 동아시아 국가의 이주 배경을 갖고 있으므로, 밀집학교 중 한 곳을 초·중·고 통합 동아시아 국제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의 설립보다는 기존의 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는 인천에서 밀집도에 따라 지역별로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육과정 운영은 다국어교육 기반 학교로 모국어, 영어, 한국어를 수준별로 학습하고, 역사, 세계사, 문화, 예술교육 등 교육과정을 프로젝트 수업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합니다. 비다문화 학생을 50:50비율로 운영하며, 무학년제, 학점제 운영학교로 밀집도에 따라 중국어, 러시아, 베트남, 아랍어반 등을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교육 우선정책지역지정 운영입니다.** 다문화교육 우선정책지역은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계하여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안입니다. 송효준(2019)의 연구에 의하면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의 교육 발전은 가정 및 지역의 사회·문화적 자원을 학교 내 교육활동에 연계하는 환경 속에서 촉진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이 학생의 교육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역의 이주민 밀집도가 높을수록 비다문화 학생의 뚜렷한 **학력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갖추고 있을 때 교사가 인식하는 이주배경 학생 학습지도의 어려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문화 감응적 교수리더십이 높게 발휘될 때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학교 환경이 조성되는 정도가 커지는 경향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밀집지역의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³⁾하여 교육활동을 추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우선정책지역을 지정하여 연차별 과제를 선정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다문화교육 우선정책지역은 다문화 밀집 지역을 교육, 스포츠, 종교 등을 통해 다민족 간의 통합과 화합을 우선하는 지역 공동체로 만들고, 교류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이주배경 학생들의 나라와 교류 협력하는 방안도 학교와 마을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민자들의 문화 및 언어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가정 문해력 향상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며, 인천시, 연수구와 연계해 온라인과 전화서비스를 통해 통역 및 번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온라인 서비스나 책자를 통해 다국어로 제공하고 특히 의료, 사회복지, 법률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지역 도서관 및 공공 박물관에 다문화 관련 도서 및 문화관련 자료 등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마. 일반학교의 다문화교육 방안

일반학교에 대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다문화 밀집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도 다문화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천한누리학교가 학교규모가 작고 접근성이 어려워, 입국초기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한누리학교를 알고 찾아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거주지 중심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학교의 다문화 학생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미국의 어느 주의 학교에 혼자 가 있다고 상상을 해 보시면 그 기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연수구는 러시아 및 고려인 거주 밀집 지역에 대해 도시 재생사업 실시를 발표했다.

일반학교의 다문화 학생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교육에서 시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생활지도 문제, 기초학력 저하 등의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주배경이 아랍권과 같이 소수 언어를 쓰는 경우, 소통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학교 다문화교육 정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언어권별 학교지정 운영입니다. 한 통학거리 내 있는 학교라면 언어권별 통합교육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A초등학교에 아랍어권 학생이 많고, B초등학교에는 러시아권 학생이 많다면, A초등학교는 아랍어권 통합교육 학교로, B초등학교는 러시아권 통합교육학교로 지정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언어권별 통합교육이 용이하며,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가질 수 있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언어 강사의 활용과 상호 문화 습득에도 특성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어(한글)학급을 확대·운영하는 것입니다. 기초학력보장사업과 연계하여 일정비율의 다문화 학생이 있는 경우, 이 학교에 한국어(한글)교실을 설치하여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과 비다문화학생의 한글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사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다문화학생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제는 그 효과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탈북학생멘토링제와 같이 교사 멘토를 지정하여 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활동비, 교육활동비 등을 멘토 교사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상담·생활지도 및 의료지원입니다. 다문화 학생이 비다문화 학생에게 소외되지 않도록 다문화 학생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에는 상담사(교사) 지원 및 생활지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 의료지원 활동도 필요합니다.

4. 토론 달기

지금까지 인천의 다문화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바탕으로 밀집학교 및 인천 한누리학교 발전 방안에 대해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인천의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교육 방안으로는 동화적 관점에서 벗어나 상호문화이해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분리교육에서 벗어나 통합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다문화교육은 단지 한국어를 교육하고 한국문화를 습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공존할 필요성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둘째, 공립형 대안학교인 인천한누리학교의 발전 방안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국제학교로의 전환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비다문화 학생을 일정비율 모집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누리학교의 정원 확보는 물론 동아시아 시민 양성의 중심학교로의 역할과 다문화 학생들의 우수한 능력을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를 기르는 동시에, 우리 학생들도 동아시아 시민으로서 다국어 및 다문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와 관련된 진로와 직업으로 연계해 나가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셋째,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발전 방안으로 인천한누리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중도입국 외국인 자녀와 학부모에 대한 학교 적응교육(기초한국어 및 학교생활)을 실시하고 방과후, 주말, 방학 중 한국어교육, 진로교육,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중도입국 외국인 자녀에 대한 상담 활동과 이들의 한국어능력 등을 고려한 학교 배정과 통역서비스 및 이중언어 강사가 필요한 학교에 대해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의 인력 확충 방안으로는 기관배정 교사 및 학습연구년 연구교사 등을 파견·발령하고 이 교사들이 인천한누리학교 근무를 비롯한 다문화교육 교사로서 역할 수행한다면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넷째,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의 발전 방안으로 밀집학교를 동아시아국제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국제학교 전환은 다문화학생 밀집으로 인한 비다문화 학생의 역차별로 인한 전학문제를 해소하고 통합교육을 통해 동아시아 시민 리더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집학교 통합학급에는 1학급 2교사(담임+이중언어 강사)를 배정하여 담임교사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안과 통합학급 담임교사는 해당국 체험 연수를 통해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다섯째, 다문화 밀집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도 다문화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학교의 다문화 학생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의 시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오히려 생활지도 문제, 기초학력 저하 문제 등으로 학업

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언어권별 학교 지정 및 운영, 한국어학급 운영, 교사 멘토링제, 상담 및 생활지도 및 의료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여섯째, 이러한 다문화 관련 방안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사의 열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사의 열정은 다양한 인센티브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사가 다문화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을 때,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교육에 열성을 가지고 헌신한 교사를 발굴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본 발제가 인천의 다문화교육에 적합한 공교육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어 습득과 한국 사회 적응 중심의 다문화교육에서 벗어나 다문화 학생과 우리나라 학생이 모두 주인공이 되는 통합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다문화 교육시스템 구축을 기대해 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 김도형(2020)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의 실태 및 방향”, 광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효준(2019) “이주민 밀집지역의 학교개혁: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관점”, 한양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이신영(2020) “다문화가정 밀집지역 여부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다문화 태도 차이 연구”, 서울교육대학교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흥수(2014)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지원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인제(2014), “통합교육 기반 다문화특성화학교 모델 개발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순외(2012),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체제 및 운영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 오성배외(2010), “인천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방안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용역과제.
- 인천광역시교육청(2012), “2012공립다문화대안학교의 합리적 체제 구축 및 효율적 운영제고”,공청회 자료
- 윤치권, 김선배(2020), “인천광역시 다문화학생 밀집 학교의 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인천교육정책연구소 현장연구 논문.
- 인천한누리학교(2020), 학교교육계획서
- 인천광역시교육청(2020), 인천한누리학교 현황 자료
- 인천광역시교육청(2020),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계획서.
- 인천광역시교육청(2020), 인천다문화지원센터운영계획서.
- 경기도 시흥시교육청(2020),군서미래국제학교 리플릿.

인천 다문화교육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문

장은영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인천 다문화교육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편

장은영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한국사회에 이주민이 급증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담론이 다양한 갈래로 진행되어왔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습득이나 학업 성취, 한국 문화 적응 등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교육지원 정책 및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top-down 방식의 지원이 거둔 성과는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 형성,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 제공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교육을 둘러싼 갈등과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역차별 논란을 비롯한 반다문화주의 경향도 그 세를 얻어가는 실정이다.

인천시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실천, 성공과 고민의 사례들은 한국 전체의 다문화교육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본 토론편에서는 인천시의 다문화교육 현황과 한누리학교의 운영실태 관련 자료, 성상환 교수님과 유충렬 연구관 두 분 발제자의 원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다문화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제되어야 한다.

인천시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 자리 잡은 치명적인 오(誤)개념은 다문화교육이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상환 교수 역시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경우 다문화교육이 아니라 보다 선진화된 상호문화교육적 접근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다문화교육의 핵심 개념과 가치를 오해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 다문화교육은 국적, 인종, 문화, 언어, 성별, 성적취향, 종교, 연령, 장애 등의 요인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제공되어야 함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다. 학계는 다문화교육과 다문화주의에 대해 단순히 인종이나 이주민의 영역을 넘어선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보지만,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소위 ‘한국학생’ 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다소 시혜적인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어 그 괴리가 깊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에 반해, 세계시민교육이나 상호문화교육은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다문화교육은 분명히 모든 학생들을 대상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이주배경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이들에게만 다문화교육을 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세계시민성이나 상호문화소통역량의 함양을 위한 교육 역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대상이나 경계 구분에 연연하지 말고,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을 국제도시인 인천시 교육 전체의 기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한누리국제학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인천시의 ‘공립다문화대안학교’ 운영은 매우 혁신적인 시도이며 한국 다문화교육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가진 교육적 실험이라 생각한다. 특히 인천이 국제도시이자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감을 가지고 새로운 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생감소와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자료를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한누리학교를 국제학교처럼 만들면 안 되는가’ 였다. 이후 유충렬 발제자의 원고를 읽으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제학교 전환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며, 특히 본 토론자는 한누리국제학교의 성공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때에 가능하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유충렬 발제자는 “인천한누리 동아시아국제학교(가칭)” 로 전환 될 경우 예상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동아시아 인재를 꿈꾸는 학생들이 입학하고 싶은 학교로 이미지 구축. 둘째, 동아시아 시민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다국어 학습 기회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대효과에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정교하고 세밀한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

1) 진짜 국제학교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6개월에서 1년이라는 단기 위탁교육의 형식은 체계적인 교육이 어렵고 한국어 집중교육이나 표면적인 문화체험교육에 그치게 한다. 따라서 국제학교로 재조직될 경우 오히려 체계적 교육을 받고 학교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장기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보내기를 원하는 국제학교를 벤치마킹하고 수업내용과 방식에서 일반 학교와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은 영어를 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융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수업 역시 특목고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학습, 모의유엔,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수업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중심 수업으로 정교히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동아시아 국제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신중히 고민되지 않는다면 이름만 바꾼다고 하여 인식이나 호감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누리학교의 정체성이 국제학교라면 위탁교육이나 한국어와 한국문화 습득이라는 동화적 접근이 아니라 국제학교 수준의 글로벌 교육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한누리학교 교육과정은 기본과정(50%), 특성과정(50%)을 구성되어 있는데 특성화교육과정은 학력신장(한국어), 진로과정(진로교육, 컴퓨터, 문화이해), 다문화 과정(태권도, 은울탈춤, 세계시민교육)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어에 집중하거나 이 학생들이 다문화학생이라 해서 다문화과정을 교육과정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실제로 문화체험이지 다문화교육이라 할 수도 없는 듯하다. 다문화 과정에 해당하는 활동들은 일반학교처럼 방과 후 취미활동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심 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누리학교가 재학생들의 한국어 습득에 중점을 두기 위해 한국어만 사용하게 한다고 자료에서 보았는데 이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한누리학교에 있는 동안 모든 것을 일단 정지하고 집중적인 한국어교육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이주를 경험하지 않은 주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막 한국에 도착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전혀 흥미롭거나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민족어, 민족문화 기반 다문화/다언어교육을 경계하고 횡단적 언어소통과 실천이 중요하다. 고착화된 문화나 언어의 경계를 넘어 큰 틀에서 학생들의 이주 전 경험을 자원(funds of knowledge)으로 보고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모어를 제2언어 습득에 활용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제2언어 습득을 보여준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다중리터러시(multiliteracies)의 관점에서 한국어라는 하나의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모어를 포함, 이미지, 영상, 소리 등 다양한 기호자원이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때 언어뿐 아니라 인지발달 및 사회적응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다중언어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18개국 출신의 학생들 이백여 명이 넘게 수업을 받는 한누리학교의 원활한 운영은 사실상 이들의 언어를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교히 설계된 교육과정과 효과적인 교육자료 개발 없이 불가능하다. 즉, 언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언어교육학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담론은 다중언어주의와 트랜스랭귀징이라는 교수법이다. 교사는 단일 언어구사자인 경우가 많지만 학생들은 다문화, 다언어의 양상을 보인다. 이때, 다중언어적 언어 인식과 학생들의 다양한 언어적 자원을 수업에 활용하여 언어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를 내는 것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토론자 역시 중국출신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중국어, 영어, 한국어를 넘나드는 트랜스랭귀징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2년 이상 운영하였고 학생들의 영어 능력뿐 아니라 건강한 자아정체감과 다중언어 구사자로서의 자신감 상승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탈북학생 프로젝트를 통해 교사들의 다중언어 인식과 트랜스랭귀징 교수법의 이해가 시급히 요구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현재 트랜스랭귀징 교사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중부권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다문화 학생들 역시 다양한 언어권에서 왔다. 이들의 한국어 특별학급 교육은 현재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 각각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동시에 존중되는 교육과정이 제공되지 않으면 영어와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게 된다 해도 자신의 풍성한 언어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다중언어구사자로서의 자기 효능감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인천시가 트랜스랭귀징 교수법에 관심을 가지고 교사 교육을 지원하고 역량 있는 교사를 양성하여 ‘한누리국제학교’ (동아시아를 넣으면 너무 제한적인 인상이 되니 한누리 국제학교를 제안한다)에서 활용한다면 향후 다언어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국내출생의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다중언어 혹은 모어 유지를 위한 이중언어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언어의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는 선입견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단, 학문적 한국어 역량은 잘 살피서 각 학교에 설치된 지원 학급이나 수업 중 다문화언어강사 혹은 이중언어강사를 통해 보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중언어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문화학생들의 이중언어 능력은 일반학생과 함께 있는 통합교육에서 매우 가치적인 강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살릴 수 있어야 한다. 단, 다문화 학생이라고 해서 언어만이 강점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수학, 과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영역에 장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언어에만 집중하지 않아야 한다. 때로 다문화 학생들에게는 한국어, 모어, 영어라는 언어자원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비다문화학생들에게 오히려 이중언어 역량이 가지는 장점을 강조하여 이중언어구사자인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중언어에 관심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중언어 사용은 메타인지능력을 향상시킨다. 다문화교육에서 최고의 방법중

하나는 또래효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중언어, 다중언어 등에 대한 역량강화가 다문화학생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4) 동아시아 국제학교로 제한하지 말고 국제교류의 장을 넓혀야 한다.

한누리학교가 동아시아권 학생들을 주로 위탁하고 있어 동아시아 문화와 언어에 중점을 두는 것은 학교의 특성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라는 제한적 규정을 굳이 둘 이유는 없으며 학생들의 모국이나 미국, 캐나다 등 서구권과의 교류 등을 유연하게 해야 할 것이다.

3. 통합교육과 밀집학교의 국제학교 전환에 대한 생각

밀집현상 문제해결방안으로 유충렬 발제자의 제안은 밀집학교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동아시아 국제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p. 24)이다. 그러나 다문화학생 밀집학교를 국제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이름만 바뀌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 인천시의 경우 다문화학생 비율이 2.9%이고 밀집학교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문화 학생 재학교 92.2%에 달한다는 자료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밀집학교를 국제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오히려 밀집화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며 ‘통합교육’을 보다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음은 통합학교 운영을 위한 본 토론자의 의견이다.

- 교과융합다문화교육: 소수 학교에 다문화 특별학급이 있으면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관내 모든 학교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융합 다문화교육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각 교과에 다문화교육의 핵심 요소를 융합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고안한 IDEA모형(김성식 외)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러시아권, 아랍권, 고려인 이주 특정 지역 밀집현상을 고려할 때 특정 학교는 지원학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지원학급은 다문화학생들이 있다면 관내 여러 학교로 확대 설치되어야 한다.
- Two-way bilingual education: 일반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 특정 지역의 다문화학생 밀집화나 일반학생이 떠나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효과성이 좋으나 주요 언어 위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으므로 소수 언어 사용학생들을 위한 방안 반드시 모색해야 한다.
-

- 수업의 측면에서, 모국에서 나온 교과서 교재 혹은 모국의 재외한국인을 위한 교재 등을 활용하여 수업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수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와 디지털 자료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콘텐츠와 교수방법에 대한 고민과 구체적인 대안 반드시 필요하다.
- 학부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상담창구를 열어 학교와 가정이 연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교사전문가 양성 매우 중요: 각 언어권 교사 전문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언어를 쓰는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교사교육과 역량있는 교사 확보가 중요하다. 다문화교육에 전문성과 경험 및 열의를 가진 교사들을 파악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교재 개발 및 수업안 공유 등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한누리학교 교원이거나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업무를 담당해본 교원들이 양질의 교사연수 (제2외국어, 다문화 및 세계시민교육, 다언어 및 트랜스랭귀징 교수법 등)를 이수하도록 하여 다문화교육 교사전문가로 양성하고 이들의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4. 인천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한누리학교에 있는 인천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다문화교육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구심점의 역할과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력이 4명에 불과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보강과 구체적인 역할 명시가 필요하다.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에 대해 본 토론자는 다음 의견을 제안한다.

- 한누리국제학교, 밀집지역의 학교, 일반 학교간 교류 활동을 디자인하고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제학교와 해외 교육 기관 간 교류 활동을 디자인하고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러 곳에 흩어져있는 교육 자료들을 원하는 교사가 검색하여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 자료와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교사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과 다언어 교수법(트랜스랭귀징 등)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및 교사 네트워크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학교와 학부모, 지역공동체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문화학생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지원 기획 및 수행이 필요하다.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의 다문화학생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참조)

이 외에도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인력과 재정을 재정비하고 전문가 자문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인천시 다문화교육 컨트롤 타워로서 그 위상을 제고하고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발제자는 원고 마무리에서 “다문화 관련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사의 열성이 가장 중요” 하고,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리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선공후사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p. 26).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토론자는 공감하기 어렵다. 본 토론자는 최근에 서울시교육청의 정책학교 운영에 관한 위탁연구에 참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문화교육에 신념을 가지고 일해 온 여러 초중등 교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교사들은 수년에 이르는 경험과 노력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놀라운 전문성과 감수성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다문화 교육의 어려움과 정책학교의 갈등은 오히려 정책적 경직성, 소통의 부재, 네트워크 형성의 어려움 등 서로 협업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의 자기 희생적인 열정만을 요구하거나 선공후사 방식의 접근은 교사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보여질 수 있고 교사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인천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훌륭한 교사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해야 하며, 인센티브와 격려를 아끼지 말고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지침/지원과 교사 자율성을 동시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인천 다문화교육 다시 한 번 도약을 꿈꿔야 할 때

유혜경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인천 다문화교육, 다시 한 번 도약을 꿈꿔야 할 때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유 혜 경

I. 서 론

인천에서 공교육으로서의 다문화교육이 시작된지 14년째이다. 처음 다문화교육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가정이 급증하고 그 자녀교육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민주도로 시작되었다. 이후 공교육에서 다문화학생들이 증가하면서 학업문제나 정체성문제, 진로문제 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소위 혼혈아로 불리던 하인즈워드의 성공스토리는 그들에 대한 편견 해소와 장점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확산으로 이어져 전국적인 다문화교육 열풍이 불었다.

필자가 다문화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2006년 당시 인천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인천송월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인천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사업(벨트형 다문화교육 중심학교) 담당 업무를 맡게 되면서부터였다. 당시 다문화교육라는 용어는 교육계에서 매우 생소했고 많은 선생님들에게 새로 추가된 업무, 명쾌한 매뉴얼이 없는 어려운 숙제로 다가왔다. 다문화교육 관련된 연구회나 협의회 장소에서는 주로 현장의 고충을 토로하는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그 안에서도 다문화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도는 그칠줄 모르고 이어졌고 해마다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갔다.

초기 다문화교육은 다문화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체험학습 위주의 한국문화교육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추후 다문화이해교육이나 이중언어교육까지 확대되는 등 입체적인 다문화교육으로 성장하였다. 벨트형 다문화교육 중심학교 사업은 꾸준히 확대되었고, 소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문화학생과 학부모를 교육의 한가운데로 이끌어 그들의 원만한 학교생활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인천형 다문화교육은 전국적으로도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교육부에서는 전국 최초 초중고 통합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인 ‘인천한누리학교’ 설립 지역으로 인천으로 낙점하였다. 이는 다문화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인천에 매우 의미있는 결과였고, 인천 다문화교육이 이룬 괄목할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지금 인천의 다문화교육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요구받고 있다. 눈 내린 새벽, 첫 발자국을 내는 마음으로 깊은 고민이 담긴 제안을 해 주신 유충열 교육연구관님의 발제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천교육의 자부심으로 빛나는 다문화교육이 멋진 도약을 꿈꿀 수 있도록 토론자 입장에서의 생각과 제안을 더해보고자 한다.

Ⅱ. 인천 다문화교육에 던진 질문

발제자께서 인천 다문화교육 현황과 정책을 바탕으로 제시해 주신 시사점은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시사점에 대한 토론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학생의 급격한 증가 문제

2. 다문화교육 초창기에 다문화학생은 주로 공단 주변이나 차이나타운 인근, 인천항 주변, 특정 종교인 집단 거주지역 등에서 밀집되어 나타났다. 다문화학생 수가 학구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처럼 여겨지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문화학생이 없는 학교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울만큼 인천의 다문화학생 비율은 급증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어학급 설치하는 일부 학교에 국한되어 있으며, 다문화교육은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 수준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문화학생과의 만남과 교류는 교육과정의 외연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동아시아시민,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따라서 다문화학생 급증에 따라 다문화학생 맞춤형교육과 함께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요구된다.

2. 다문화학생 밀집 학교 문제

자치구별 다문화학생 비율을 보면 부평구와 남동구에 많은 학생이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인 학생수는 연수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함박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고려인의 집단 거주, 인천항만 일대 풍부한 일자리, 수인선을 통한 안산과의 접근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연수구의 문남초등학교, 함박초등학교에는 러시아어권의 고려인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고, 그 증가 추이가 매우 가파르다. 이런 추세라면 안산의 사례처럼 다문화학생비율이 한국학생비율을 추월하는 상황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밀집학교

의 경우 교사들이 수업 진행은 물론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상담 등에 어려움이 매우 크다. 다행히 한국어학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여러모로 차이가 큰 러시아나 아랍 관련 국가에서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학생 지도에 대한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과 상담 및 통번역, 기초학력 보조 인력 지원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3. 중고등학생 대상 다문화교육 문제

특히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다문화학생들이 점차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중고등학교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문화학생의 국내 체류 형태가 좀더 장기화되고 한국에서 대학교 진학, 취업까지 희망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과 맞닿아 있고, 이는 다문화학생의 진로까지 포함하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문화교육에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초등학생들이 주로 한국어 습득을 통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적응을 바탕으로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등 보다 구체적인 진로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이런 중고등학생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이 지닌 장점에 맞는 진로·진학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은 다문화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4. 인천한누리학교 운영 문제

발제문에서는 한누리학교가 분리교육이며 이러한 환경이 일반학교 적응을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누리학교가 현재 위탁교육이라는 학사운영 체제를 갖게 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누리학교 개교를 준비하던 당시에 한누리학교가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분리교육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교육계 안팎의 목소리가 높았다.

다문화학생은 일반 학교와 분리된 별도의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이라는 제도권 내로 진입하여 일반학생과 같은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진정한 통합이며, 한누리학교는 그 디딤돌 역할을 하는 일시적 분리 집중 교육기관(예비학교)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결국 한누리학교는 입학에서 졸업으로 이어지는 정규학교의 학사운영이 아닌 일반학교 원적을 두고 일정기간만 분리교육을 하는 위탁교육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즉, 학생들이 우리 나라 공교육이라는 제도권 내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

는 학교로서 인천한누리학교 설립이 추진되게 된 것이다.

일반학교에 적응을 돕기 위한 기관이라는 설립 취지에 부합되게 일반학교와 유사하게 국가교육과정을 적용하고 교원도 공립학교 교원으로 배치하였다. 다만,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적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한국어 실력이었으므로 정규교육과정을 50%로 줄이고 나머지 50%는 수준별한국어교육을 포함한 특성화교육과정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누리학교는 궁극적인 통합교육 또는 사회통합을 위한 일시적 분리 집중교육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발제문에서는 한국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한국어 습득에는 용이하지만 상호문화를 존중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나와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기능이다. 한누리학교에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양식이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2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인종, 언어, 문화를 접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이는 태도는 자문화에 대한 맹목적인 우월감이 아니라 타문화에 대한 관심과 배려였다. 물론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를 극복하는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성의 가치를 몸으로 익혀간다.

주목할 점은 소수언어권 학생들이 다수언어권 학생들에 비해 한국어 습득이 빠른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국어를 생존언어로 접하기 때문이다. 다수 언어권인 경우 그 중에 한국어를 잘 하는 학생이 통번역을 도와주는 일이 많아서 스스로 학습해야 한다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학생들이 일반학교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습득이 관건이기 때문에 교내에서는 가급적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의 문화적인 특징이 짙게 녹아있기 때문에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교육도 매우 중요하게 다뤘다.

자민족 중심적인 교육으로 비취지는 한누리학교 교육활동이 실상은 다문화학생의 향후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으로 이해함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학생들이 그들의 모국어와 모국문화를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보완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누리학교 위탁학생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에서 2016년까지 학생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개교초에는 신문이나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학교를 홍보하였고 교직원들이 학교 홍보를 위해 인근 지역에 홍보 자료까지 직접 배부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성과로 보인다. 2018년~2019년에도 200명 이상의 학생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168명의 학생이 한누리학교 교육지원을 받은 것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한누리학교 정원을 학급당 15명씩 15학급 총 225으로 정했으나 최근 일반학교

에서도 학생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를 20명 이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의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혼재된 15명을 한 학급에서 지도하는 상황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실제로 필자는 2016년에 한누리학교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음악, 미술, 체육, 영어 수업을 진행한 바 있는데, 한반에 15명이 사용하는 언어는 무려 8종류였으며 나이도 13~15세로 다양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을 일반 학교의 50%에 맞추기 위해 중고등학교 일반 학급 30명을 기준으로 하여 기계적으로 50%로 줄여놓은 학급당 학생 수를 현실화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누리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다문화학생 증가율에 비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구가 필요하다. 다문화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 조사를 통해 이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누리학교를 거쳐간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누리학교 교육과정은 그들의 학교생활, 진학과 진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종단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및 공립다문화대인학교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

1. 다문화교육 정책 제안에 대하여

가.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점 전환

인천 모든 학교에서 다문화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만큼 학교가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특히 상호문화적인 관점은 단순히 선언적인 측면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학교 운영 전반과 교수학습 측면에서 가시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안산에서 다문화학생 비율이 80~90%에 달하는 초등학교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서부터 다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학교의 지향점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한 다국어로 다문화학급의 교육과정을 번역하여 제공하기도 하였다.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간 혁신 사업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요소들을 고민하고 반영하면 좋을 것이다.

인천의 주요 교육정책인 동아시아시민교육과정도 교내 다문화학생의 출신국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필자가 1학년 담임교사였을 때 러시아어권에서 온 고려인 학생, 예멘에서 온 난민 학생이 포함되어 있어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배경 등을 지도한 결과 학급 전체 학생들이 다문화학생들을 이해하

고 돕기 위해 협력하는 교실문화가 조성된 경험이 있다. 내 옆에 있는 다문화학생을 통해서 일반 학생들도 세계시민으로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사례를 일반학교와 공유하거나 교사들을 위한 테마별 타문화이해 연수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제공하는 등 교사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다문화교육이 일회성 교육이 아닌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바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의 학교문화운동 측면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일반학급-통합학급 선택권 부여

일반학교에서 일반학급(한국학생)과 통합학급(한국학생+다문화학생)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모델은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통합학급에 문화다양성이나 기초언어학습 등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예산이 주어진다면 일반학생에게도 매력적일 것이다.

다만 통합학급은 학기 중에 꾸준히 학생이 유입되므로 학급 운영이 불안정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통합학급 정원을 일반학급에 비해 어느 정도 줄일 것인지, 통합학급 담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나 업무 경감 문제, 중도입국생이 예상보다 많아진 경우 학급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제반 문제 상황에 대한 학교 차원의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공립다문화대안교(한누리학교) 발전 방안에 대하여

발제문에서는 다변화되고 있는 한누리학교 현황에 대응하여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학교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다. 한누리학교 발전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 중에서 동아시아국제학교로의 성격 전환, 학년·학급 구성, 학생 모집 및 학사 운영, 교육과정 운영, 부설 다문화교육 연구소 설치를 중점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동아시아국제학교로 성격 전환

한누리학교의 학생은 다국어, 다문화에 접근성이 높아서 다문화적 감수성을 체득할 수 있는 환경임은 틀림없다. 또한 동아시아 출신 다문화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어서 동아시아 시민 교육을 위한 체험의 장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하지만 한누리학교가 동아시아의 학생은 물론 서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지구촌의 축소판으로 볼 때 학교의 성격은 동아시아로 국한시키기 보다는 전 세계의 학생 아우를 수 있는 글로벌학교로서의 성격으로 확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글로벌시대에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계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동아시아 시민의식과 세계시민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동북아의 관문도시이면서 다양성의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인천의 경우는 특히 더 그러하다. 따라서 동아시아관련 선택과목을 편성하거나, 동아시아 중점반 등 일부 특별학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육과정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보다 안정적일 것이다.

나. 학년 학급 구성

초등학교의 경우 학년군으로 학급을 구성·운영(총 3학급)함으로써 학급당 학생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6학급씩 총 12학급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라 초등학생 정원은 45명으로 줄고, 중·고등학생 정원은 180명으로 확대된다. 즉 중·고등학생 중심의 학교 운영으로 변화를 꾀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최근 일반학교의 한국어학급 운영이 점차 확대되면서 다문화학생 밀집학교(특히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한국어학급으로 대폭 흡수되고 있어 단위학교 중심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해교육 지원이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은 기숙사생활이나 통학버스 이용보다는 집에서 근거리를 도보로 통학하는 것이 발달단계에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난민학생이나 소수언어(문화)권학생, 적응에 대한 불안도가 높은 다문화학생들에게 여전히 한누리학교의 맞춤형 적응교육이 꼭 필요하다. 다문화학생 증가 추세를 보았을 때 한누리학교 위탁교육에 대한 수요는 소폭이라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초등학생 정원 감축에 따른 교실 밀집도 상승 및 대기자 증가(특히 1, 6학년), 6개월 후 밀어내기식 원적교 복귀는 여전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학년군으로 운영하게 되면 교육과정을 완전히 재구성하게 되고 교과서 활용이 위축되어 일반학교에서 수업과 간극이 더 벌어질 우려도 있다.

다. 학생 모집 및 학사 운영

발제문에서는 중·고등이 분리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국학생 선발을 하되, 전체 정원의 30%이내로 제한하고 학사 운영을 정규교육과 위탁교육이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사운영은 졸업과 입학이 가능한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되 위탁교육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규교육과정은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입학하여 졸업까지 하게 되고, 위탁교육과정은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부적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위탁하였다가 다시 원적교로 복귀하는 방식이다. 다문화학생, 위탁다문화학생, 일반학생은 서로 다른 필요와 요구를 가졌으며 이러한 학생들이 한 학급에 모여 있을 경우 과연 수준에 맞는 수업이 가능한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서로 공존하는 환경에서 학생들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일반학생을 받아들일 경우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교류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 수**는 확보될 것이고 한국어 사용 빈도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학생에게는 한국어에 노출될 수 있는 빈도가 확실히 증가할 것이다. 또 일반학생의 경우 세계 여러나라에 온 다양한 외국어를 접하면서 다문화 감수성과 다국어 역량이 증진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 선택이 주로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인 것을 감안할 때 러시아어나 베트남어 등을 배우기 위한 일반학생의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며, 제2 외국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 전담 교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이 철저하게 수립되지 않으면 모두에게 의미있는 배움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는 무학년제, 학점이수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재학 도중 일반학교로 전학의 희망하는 경우 일반학교와의 격차가 커서 또다른 부적응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특목고등학교(특성화고, 국제고, 외교 등)에 진학을 희망하는 일반학생들이 경쟁적으로 진입할 경우 수업내용이나 평가에 있어 다문화학생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도 있다.

라. 교육과정 운영

발제문에서 한누리학교 통합교육과정의 예시를 보면 중·고등학교의 특성화교육과정을 다국어언어특성화, 예체능특성화, 다문화특성화로 세분화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고등학생은 현재 일반교육과정 50%, 특성화교육과정 50%를 유지하되, 특성화교육과정을 중학생은 다국어특성화(모국어, 영어, 한국어)와 다문화특성화과정으로 편성하고 고등학생은 다국어특성화, 예체능특성화, 다문화특성화로 편성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이사항은 다국어특성화과정에 영어와 모국어를 신설한 것인데, 다국어로서의 영어는 교과교육과정의 영어와 어떻게 다른지 구분이 모호하며, 모국어의 경우에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아랍어 이외의 언어는 소외되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모국어와 영어과정 확대에 의해 한국어교육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한국어교육이 시급한 중도입국 다문화학생들의 요구와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학생이 모국어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다문화학생의 모국어가 매우 다양하고 학적변동이 수시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특성화교육과정으로 특정 언어과목을 편성하는 것은 수요와 미스매치될 수 있고, 교원 수급 또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수업에 있어서 다국어특성화 과정은 수업의 수준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이다. 가령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어 수업과 러시아어를 외국어로 하는 한국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어수업은 내용과 수준에 있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다국어수업 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교육과정에도 마찬가지다. 일반학교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과정까지 이수한 한국학생과 중도입국한 학생을 동일 선상에 놓고 수업을 하고 평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문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언어과목과 예체능 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교원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국어 과정이나 영어(심화)과정은 특성화교육과정보다는 수요조사를 거쳐 방과후 교육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마. 한누리학교 부설 다문화교육 연구소(세종학당) 설립 운영

인천한누리학교는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공립형 다문화대안학교 모델로서 그동안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고 그게 부합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프로그램과 교수학습자료나 연구자료가 개발되었고 지금도 의미있는 다문화교육 교재 및 자료들이 생산되는 곳이다. 이런 귀중한 자료들이 체계화하고 일반화하여 보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므로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담당부서나 기관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반영한 학교운영을 위한 학교발전위원회 설치, 교원평가 등의 문제는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이며, 수탁기간은 내부적으로 합의나 심의기구 설치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입국초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적응교육 의무 참가는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개선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다문화학생 학교 배정 전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누리학교와 한국어학급 운영 학교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적절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또한 센터에서는 한누리학교의 다문화적 배경을 활용하여 동아시아시민교육이나 세계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이 요구된다. 다양한 동아시아 다문화학생들에게 교육공백기인 방학기간이나

주말,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장소가 공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관배정 교사나 파견교사 등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4. 다문화 밀집학교의 발전 방안

현재 다문화 밀집학교로는 연수구 문남초(러시아권), 함박초등학교(러시아권), 옥련초등학교(아랍권) 등은 중도입국학생이 꾸준히 증가하여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반 학생들이 타학교로 전학가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다문화학생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발제자의 다양한 제안은 앞으로 우리가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교육적 현안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 통합교육과정 운영

발제문에서 밀집학교 일반학급의 학생수를 15명 이하로 배정하자는 의견은 매우 핵심적인 제안이다. 일반학생도 물론 개인차가 크지만 다문화학생의 경우 국적과 언어, 학력 수준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사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문화학생 비율 20%를 기준으로 그 이상인 학교에는 학급당 인원수 적정화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학급당 다문화학생을 일정비율(50% 이하)로 배정하는 것은 학교와 사회와의 간극을 두는 일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가르치는 일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합학급 편성을 희망에 따라 배치하는 방식은, 학급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다시 학급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1학급 2교사제나 가변적 학습 편성권 부여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모국어와 문화이해학습, 멘토멘티학습, 이중언어학습 등은 타 정책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으로 실천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나. 동아시아국제학교(가칭) 지정 운영

밀집학교 중 한 곳을 초중고 통합 동아시아국제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는 제안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학생 발달단계가 상이하여 리모델링만으로는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최적의 시설을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초중고 통합보다는 학교급별로 별도로 지정하고 학교간 연계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을 배려하여 동아시아로 국한하기 보다는 세계시민학교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다문화교육 우선정책지역(Zoned'education prioritaire) 지정 운영

발제문에서 제시된 다문화교육 우선정책지역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계하여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안은 매우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주민 밀집 거주지역에는 이주민을 지원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있고, 이주민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관들과 연계하여 학교 안팎에서의 교육지원이 이뤄진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촘촘한 지원체계와 안전망을 갖추게 될 것이다.

5. 일반학교 다문화 정책 제안에 대하여

일반학교 다문화정책으로 제안해주신 언어권별 학교지정 운영이나 한국어 학급을 모든 학교로 확대하는 방안, 탈북학생멘토링제를 다문화학생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과정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다문화 교육의 특성에 맞게 변경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IV. 결 론

다문화학생과 우리나라 학생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은 평등교육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메시지이다. 출발선이 다른 다문화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다문화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인천교육청은 다문화교육 정책을 매우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는 학교 현장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반영한 결과이다. 이번 인천 다문화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다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토론의 장이 펼쳐진 것 또한 우리 인천교육이 머무르지 않고 또 한번의 도약을 꿈꾸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발제자의 기대처럼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피부색과 언어, 문화의 경계를 넘어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희망적인 논의들이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인천형 통합 다문화 교육 또 다시 위대한 한걸음

주 명 희
인천사리울중학교 학부모



인천형 통합 다문화 교육, 또 다시 위대한 한걸음

인천사리울중학교
학부모 주 명 희

21세기 들어 본격화된 결혼이민과 글로벌 시장 변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 인력, 그 외 다양한 이주 배경 등으로 유입된 외국인들에 의해 한국사회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주로 차별과 동화에 초점이 맞춰진 다문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또한 인천도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함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동일 언어권 외국인들의 집단 거주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정 지역 소재 학교 다문화 재학생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전체적으로 다문화 재학생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저학년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밀집 학교 및 초·중·고를 연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공교육의 필요성과 인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와 발전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인천형 다문화 교육이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샐러드 볼 이론과 같이 공존과 조화를 이루는 다문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유엔 협약국으로 모든 아동은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 권리를 보장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국제적 약속을 떠나 마을의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하는 부모이자 선배 시민으로서의 책임이기도 하다.

교육 공동체와 마을의 이해관계를 고루 살피어 인천형 다문화 교육의 내일을 제안해주신 유충열 교육연구관님과 성상환 교수님의 발제에 깊이 감사드리며, 인천형 다문화 교육이 나아가고자 하는 내일에, 일반 학부모로서, 또한 시민으로서 토론자의 생각과 제안을 더하고자 한다.

1. 인천 다문화 교육 현황 및 시사점

인천 다문화교육 현황과 정책을 바탕으로 제시해 주신 발제자님의 시사점에 대한 토론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가. 다문화 학생증가에 따른 교육정책

다문화 청소년은 각각의 가정환경을 고려해 바라보고 접근해 나가야 한다. 부모의 출신국과 사용언어 등에 따른 문화와 정서적 차이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에서 지원하는 그 어떤 양질의 프로그램도 가정의 환경을 배제하고는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습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문화 교육정책은 다문화 가정과 학생에 대한 지원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쉽게도 일반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다문화 가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 다문화 재학생 밀집학교 문제

안산을 비롯한 타지역에서도 공단 주변에 외국인 밀집 지역이 형성되고 인근 학교에 다문화 재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천도 남동공단을 주변으로 외국인 밀집 거주지가 형성되면서 거주지 인근 학교에 다문화 재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별 다문화 학생에게 한국어 교육이 지원되고 있지만, 한국어 학습 정도의 차이가 있어 정규 교육과정을 따라가기에 개인차가 존재하고, 일반 학생들에게 다문화와 언어에 대한 지원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언어로 인한 부담은 교사뿐만 아니라 다문화 학부모에게도 존재한다. 교육가족 간 소통의 어려움은 교내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학교 구성원간 문화의 이해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시스템 부재가 아쉽다.

언어권별 학교지정 운영이 되면 다문화 학생의 밀집도를 분산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교육 현실로 보아 많은 학부모가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주민 가정의 재학생 밀집도가 높을수록 비 다문화 학생의 뚜렷한 학력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한누리학교의 운영 문제

한누리학교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청소년을 위탁 교육하는 기관이며, 최소한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면 본교로 돌아간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우리나라에 와서 낯선 환경에서 낯선 언어를 배우는 것도 힘든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머무르다가 원래 학교로 되돌아가 다시 정규 교육과정을 받게 되면서 또 다시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학생들은 그마저도 입학이 불가하고,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누리학교에서 1학년을 보내고 2학년 때 본교로 다시 온 한 학생은 한국말이 유창하지는 않지만 알아들을 수는 있으나, 학습의욕 저하로 수업을 따라가기는 매우 힘들어한다고 들은 바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한누리학교보다 본교에서 처음부터 적응해나가기를 희망하는 다문화 학부모가 늘고 있다.

2. 다문화학생 밀집 학교 및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

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 통합교육을 제안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학교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교사의 다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언어와 문화 등 전문성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가족에게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할 수 있는 통합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구성원간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직하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가 언어로 인한 거부감을 낮추고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가 나서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학교구성원간 문화적 갈등을 줄이고, 세상을 보는 틀을 형성하는 청소년 시기에 다름에 대한 수용과 성숙한 태도를 갖출 수 있게 한다.

나. 중도입국 청소년 등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정책의 보완

중도입국 청소년 등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에게 한국어 교육 후 일방적인 정규 학교로의 진학을 안내하기보다는 개인의 관심과 적성을 고려하여, 관련 실업계 또는 기술학교, 취업 등 상호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 그 밖의 제안

획일적인 다문화 교육에서 나아가 문화와 학습의 차이 등 다양성을 고려한 수업의 설계가 필요하다. 일반 학생들에게 다문화와 언어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별 이중언어강사의 양성과 채용이 어렵다면 지역 다문화 지원기관과 협력해보는 것도 생각해 보길 바란다. 예를 들자면, 국가사업과 연계해 인천 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21년 양성 예정인 이중언어강사를 언어권별 학교에 파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일반인과 다문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연계해 평생교육과정으로 인적자원 양성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인천형 다문화 교육은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통합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문제해결 방안

박 봉 수

디아스포라연구소 / 인천고려인문화원 대표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문제해결 방안

디아스포라연구소·인천고려인문화원

대표 박 봉 수

성상환 교수님의 발표내용, 유충열 교육연구관님의 발표내용은 저도 늘상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가족,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한 때 매우 공감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 하나가 “문남초등학교나 함박초등학교는 러시아어권 학생들이 많아서 한국 학생들이 전학을 간다고 해요. 심지어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전학을 가서 비어있는 교실이 생겼다고 하네요.”입니다.

교수님께서도 한국학생들이 다문화밀집지역 학교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의 학교들의 경우 공교육과 제도적 차원에서 교육수요를 파악한 후 국제화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이중언어수업을 공립대안학교와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한국 학생들과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씀, 실천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중언어강사 제도는 2009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다문화 가정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공교육 시스템 안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서울시교육청, 2017). 이 제도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으려면 이주 부모의 출신국 언어를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과 이러한 교육의 책임자로서 고학력 결혼이주여성을 활용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습니다(원진숙, 장은영, 2018). 인천시의 경우도 2010년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시작하여 현재 많은 학교에서 이중언어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중언어 강사’가 아니라 ‘다문화 언어 강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일부 일선 학교에서는 다문화 언어 강사를 채용하여 이주 부모의 출신국 언어 교육도, 일반 학생을 위한 제2외국어 지도도 아닌 한국어 교육과 학교 행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문화 언어 강사의 역할이 원래 취

지에 맞게 모국어 또는 이주 부모의 출신국 언어를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려됩니다.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대동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수가 무려 51.9%나 되어 한국어로만 수업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렵게 되었고, 이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한국어로만 수업하는 것이 어려운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를 중심으로 이른바 ‘서울형 이중언어교실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서울시교육청, 2017). 이 사업의 핵심적인 교육 전략은 다문화 학생의 언어를 몰라서 교과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이중언어 교수가 가능한 교육 인력을 보조 강사로 활용하여 함께 교육하는 협력적 교수법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학습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이중언어교육을 교육 방법 내지 교수 전략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다른 문화권으로의 이주 초기에 있는 다문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외국인밀집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고민과 지역사회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미진한 사견을 감히 제안하려 합니다.

첫째, 한국어를 모르는 중도입국 이주배경 자녀의 공교육진입 지원과 자녀의 균형 있는 언어적·인지적·정서적 발달을 위해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학교에 예비 학교 운영과 병설유치원 신설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의해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을 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국적 영유아는 그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천과 인접해 있는 안산시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외국인 가정의 자녀에게 월 22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시흥시나 부천시에서도 국공립 원아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단순히 타 도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우리시도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은 바로 이주민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함박마을의 경우에는 구 소련연합국에서 온 중도입국 이주배경 고려인 자녀들도 상당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고려인 자녀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보육을 하는 집이 많고, 대부분 본국에 있는 조부모가 입국하여 돌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가정 보육한 어린이들은 한국어가 서툴고, 이는 곧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지원에서 벗어난 외국 국적 이주배경자녀의 문제가 향후 우리 사회

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생각합니다.

둘째,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학교는 초기 입국한 이주배경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한누리학교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학교에 한누리학교처럼 전문 인력이나 학급당 학생 수 등을 고려하고, 현재 한누리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학력과정과 교과다짐 학력과정을 운영하여 통합한다면 모두를 위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등교할 수 없을 때에도 한누리학교는 ZOOM을 통한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하여 학생들이 많이 성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예산을 지원할 때는 프로그램운동을 위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연구학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의 학교에서는 이중언어 교육을 모국어 외에 다른 언어 하나를 더 습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현실적 혜택에 초점을 둔 이중언어교육이 아니라 자국어, 이주 부모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보존함으로써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과 정서적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이중언어교육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자녀들이 자국, 이주 부모국가와 우리 사회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언어 교육이 특정된 제2 외국어 교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주배경 자녀의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교과과정에 반영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넷째, 중등단계에서도 일반한국학생들과의 통합된 교육체제를 유지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타 일반한국학교들과는 차별화되는 프로그램들이 강화되어야 하고, 영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들에 대해 전공교사의 수급이 힘들 경우 ZOOM 같은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프로그램의 개발에 교육적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고교학점제가 실시됨으로 외국어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4차산업혁명시대, AI 시대에 적합한 첨단 기술교과목들의 개설도 필요하다는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중도입국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원하지만 성적이 낮아 진학할 수 없어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고, 졸업 후에도 진로가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의 특별전형의 폭을 늘려주어 중도입국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진학 서류의 간소화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섯째, 한누리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충열 연구관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한누리학교를 국제학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말처럼 국제학교로 전환하고, 일반 학생과 이주배경학생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도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째, 어떤 것이든 법령에 의해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인천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천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인력 확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다문화 밀집지역의 학교는 문화다양성의 보고이고 축복입니다. 문화다양성의 효과는 단순히 구성 집단이나 문화의 수나 종류가 많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살아 움직여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집단들 간 접촉과 교류가 없다면, 다양성은 아무런 효과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단 간 교차 접촉과 상호행동의 함양은 이들 간 신뢰와 사회적 결속을 가져다 줍니다. 학교에서도 이들의 문화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상호문화를 존중해야 하며,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모든 아동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명칭을 바꾸고, 지원 대상도 외국인 가정이 포함되도록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 ‘다문화학생’에 대한 용어가 차별을 낳고, 낙인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의 대체 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가 마을로 들어오고, 마을공동체가 학교로 들어가 학교와 마을공동체가 협력하여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국적의 초등학생은 지역아동센터 이용도 쉽지 않습니다.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가정과 학교, 학교와 마을공동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지속가능한 민주교육이 실현될 거라 믿습니다. 특히 오늘 교수님, 교육연구관님의 제언, 제가 제안한 것이 추후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토론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다문화교육 발전 방안

김진희
부천상호문화학당 대표



인천 다문화교육 발전 방안

부천상호문화학당
대표 김진희

1.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의 방향'에 대해

한국다문화교육학회는 급변하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2년 전부터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교육철학, 교육현장 연구를 토대로 교육정책 개발 등에 앞장 서왔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와의 활발한 학술교류를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다문화교육의 가치를 공유하고 다문화교육 개혁을 위한 실천으로 연결하는데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한국다문화교육학회장을 맡고 계신 발제자께서 특히 이주배경 아동 밀집지역이 급격하게 형성되고, 다문화학생이 거의 모든 학교에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인천시 다문화교육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해주셔서 앞으로 인천시 다문화교육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문화교육⁴⁾이나 상호문화교육⁵⁾의 대상은 “모든 학생”이며, 목표는 상호존중하면서 ‘더불어 잘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차이는 우리 사회의 엄연한 현실(Council of Europe, 2016)이며 이러한 차이가 차별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성찰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밑바탕이 되도록 하는 것을 두 교육 모두 본질적으로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 용어의 의미와 대상은 지속적인 인식 전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⁶⁾으로의 구분과 낙인 효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4) “다문화교육은 1960년대 시민권 운동(Civil Rights Movement)의 격동에서 시작되었다.”(J.Banks, Ch. Mcgee Banks, 차윤경 외 역, 2011:6) 교육목표는 자기이해 증진, 주류 교육에 대안 제시,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지식·기능·태도 함양, 소수인종 및 민족의 고통과 차별 감소, 지구적 사회에 필요한 읽기·쓰기·수리 능력 신장, 소속 공동체에 필요한 지식·태도·기능 능력 신장을 제시한다.(J. Banks, 모경환 외 역, 2008:2-8) 다문화교육은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상호문화교육은 1970년대 학교에서 출현하여, 80년대에는 지역·단체·회사로 확산, 90년대 이후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교육목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 주위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그들의 편견을 줄이고, 그들로 하여금 인종주의·차별·문화적 불평등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게 하며, 민족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교류하도록 하는 것”이다.(O. Meunier, 2007:23)

6) ‘비다문화학생’, ‘일반학생’ 등 적합한 용어가 필요하다.

발제자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처럼 다문화교육을 대체하거나 다문화교육과 상반된 개념으로 사용되는 상호문화교육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집단 간 문제 해결의 강점을 지닌 다문화교육과 개인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상호문화교육의 강점이 학술적으로 폭 넓은 소통을 통해 상호 보완과 협력으로 교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인천시 이주배경 아동 밀집 지역의 증가는 이중언어교육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년정책연구원(2018)에 의하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한국에 오기 전 부모와 떨어져 보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3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온 경우가 49.9%였습니다. 이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갈수록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중언어교육의 도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이주배경의 학생 뿐 아니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이중언어교육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이중언어교육 강화 계획’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강점개발을 통한 우수인재 육성’과 국가의 통합적 관점의 접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칫 이상적이거나 추상적인 목표로 보일 수 있어, 대학 입시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과의 실질적인 소통의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토론자는 최근 중국과 한국에서 이중언어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학생의 사례를 접하게 되었는데 학생 본인은 수학과 과학에 흥미가 있었음에도 개념 이해에서부터 한계가 너무 많아서 결국 진로를 중국어과 외에는 선택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하였습니다. 이중언어교육 시 수학이나 과학 교과와의 연계는 교사 역량의 한계로 수업 진행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학년 2교사(담임교사+언어권장사) 활용 이외에 이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이주배경 학생의 출신언어·문화교육을 1995년부터 모든 초등학교 내에 도입하고 실시하였는데 출신언어·문화교육은 결국 방과 후 수업으로 밀려나고 학생들조차 버려진 전통적인 수업시간으로 여김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장한업, 2017: 126) 발제자께서 영어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토대로 국제교육특구를 제안하신 것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예견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와 문화교육이 제도권 교육에 도입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독일어나 프랑스어, 러시아학과 조차 명맥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동아시아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미래 가능성을 어떻게 발굴하고 설득해나갈 것인가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시아에 살고 있지만 유럽보다 더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천시의 공립다문화 대안학교를 통한 이중언어교육과 4차 산업과 관련한 진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토론자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민관산학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합니다. 5년여 전부터 인천, 부평의 결혼이민자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중언어가 가능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유관기관, 초·중·고·대학, 청소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풀 확보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인천시교육청, 학교, 대학, 인천시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희망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구체화 되고 실질적으로 다문화사회에서 창의적이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을 갖춘 행복한 청소년이 자라는 인천시의 미래가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2. ‘다문화 밀집학교 및 공립다문화 대안학교 발전 방안’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인천의 다문화 학생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2배에 가깝고, 92.2%의 학교에 다문화 학생의 재학율, 중·고등학생의 증가율이 초등을 넘어서고 있는 특징과 러시아권, 아랍권, 고려인 중심의 밀집학교, 25개국의 다문화 학생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립다문화 대안학교, 인천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바람직한 교육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3년 국내 최초의 공립형 다문화학교인 인천한누리학교에서 난민 학생을 포함한 25개국의 다양한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이해교육 뿐 아니라 적응을 위한 심리, 상담, 생활지도 등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선생님들과 인천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문화사회에서의 교육목표는 ‘모든 학습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여 각자에게 문화적으로 최적의 양질 교육을 제공하여 상호문화역량⁷⁾을 증진시켜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목표에 맞게 분리교육에서 모든 학습자와의 통합교육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대적 변화와 함께 분리교육에서 다문화 공동체를 지향하는 일반학생을 포함하는 통합교육의 방향을 향해 동아시아국제학교(가칭)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국제학교(가칭)의 운영 방법 중 학교의 특징으로 동아시아 다중언어를 자유롭게 소통하는 학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과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초등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동안 집중적인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중심의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일반학교의 적응을 돕는 것이 주된 역할로 보여집니다. 10명 이내이지만 중도입국 청소년의 수시입학으로 학생 수의 예측 불가, 이러한 점의 극복을 위한 학년군 무학년 수준별 수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최근 장기적인 코로

7)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능력”(Huber, Josef(ed), 2014).

나로 심각한 학력 저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모의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의 초등과정을 통해 친구관계 형성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 교원평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의 등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 학생과 학부모의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혜택과 차별성으로 접근하실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동아시아국제학교 초등과정의 교육철학과 목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청사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활한 교육을 위한 기본 전제인 의사소통이 언어적 차원으로 제한되었을 경우 언어 구사능력의 신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Abdallah-Pretceille, M, 장한업 역, 2017). 아일랜드 초등학교 상호문화교육(2006)의 주된 내용은 정체성과 소속감, 유사점과 차이점, 인권과 책임감, 차별과 평등, 갈등과 갈등해소를 포함합니다.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교육 과정안에 이러한 교육 내용들을 적용하여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6개월에서 1년의 짧은 과정안에 수행하기에는 교사들의 높은 역량과 소진이 예상됩니다.

둘째, 중등과정을 살펴보면, 초등에서는 진행되지 않던 중국어반, 러시아반, 아랍어반을 통한 다국어 수준별 학습과 동아시아시민, 세계시민의 역량 함양을 위한 학습 내용과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학습과 보이텔스바흐 합의 (Beutelsbacher Konsens) 원칙에 입각한 민주시민교육은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주입식 교육에 익숙했던 교사들이 언어적인 한계를 넘어얼마나 이해되고 준비되어있는지 교사의 역량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셋째, 고등과정을 위한 한누리 학교의 역할은 주로 오전 한국어 중심 교육이며 오후는 특성화고에서의 직업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등과정의 연계보다는 특성화고의 직업교육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국제학교(가칭)에서의 기본학력 취득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⁸⁾ 동아시아국제학교 중·고등학생의 기본적인 수요에 대한 꼼꼼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한국학생 30%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입니다.

참고로 2015년 국회와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지만 급격한 증가율에 대응할 다양하고 책임있는 정책 또한 시급합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국내 관계부처 합동(2015)의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은 고등학교 학업중단 수는 초·중등의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부적응(51.6%)이 주요 사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8) 서울의 A기관의 경우 2018년 12월말 기준 22개국 705명의 중도입국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에 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별적, 집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약 70%가 한국 정규학교에 재학 중이며 교육청과 연계해 공교육 진입을 유도하고 있어서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보라 외, 2019: 61).

체계적인 공교육 지원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인 인천한누리학교는 개교 8년을 앞두고 타시도 학생 유입의 소규모 원인이 주말 기숙사를 운영하면 과연 해결되는 것 인지요? 5년 전 서울다솜학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속에 민간이 운영하는 학력인정 다문화학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존폐의 위협에 처해있습니다(세계일보, 2020년 10월 29일). 한 쪽은 재정과 시설 부족으로 다른 한 쪽은 학생 부족으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이 되고 있습니다.

부설 다문화교육 연구소(세종학당)설립시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및 평가시스템이 요구됩니다. 인천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예산 지원의 행정업무 운영만이 아닌 컨트론타워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시작으로 다문화밀집학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구축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⁹⁾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오늘의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고민과 노력이 그루터기가 되어 미래 한국 다문화교육의 발전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상호문화역량 증진 사례로 제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참조



재정착난민 아동 청소년
통합관리 사례를 바탕으로 한
**2020 인천다문화
교육에 대한 단상들**



강 석 희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재정착난민 아동 청소년 통합관리 사례를 바탕으로 한 2020 인천다문화교육에 대한 단상들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사례관리 총괄 담당, 이사 강석희

I. 이야기를 시작하며

발제문에 대한 토론에 앞서 토론자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어울림이끌림 사회적 협동조합’ (이후 ‘어울림이끌림’)에서 통합 사례관리하고 있는 재정착난민에 대해서 소개 하겠다.

‘난민의 재정착(Resettlement) 제도’란 난민이 위험한 환경을 피하여 도착한 1차 비호국으로부터 그 난민에게 영주권을 허락한 국가로 이주하여 정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난민의 재정착 제도’는 자국의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의 영토 내에 도달한 난민에 대해 이들을 제3국으로 이주하게 하여 제3국에서 보호하는 난민 보호제도이며 국제사회의 연대이자 책임분담이다.

‘어울림이끌림’에서는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카렌재정착난민’ 16가정(총93명)에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한국 생활의 정착을 돕고 있다.

인천은 공항, 항만, 공단 밀집 등 지역적 특성으로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이주민이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제자의 ‘다문화 밀집학교 및 공립다문화 대안학교 발전 방안’은 매우 시기적절한 의미 있는 논의라고 생각하기에 반가운 마음이 컸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카렌재정착난민 아동 청소년들과 지내며 느꼈던 어려움, 생각들을 토론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II. 재정착난민 아동·청소년 현황에 대하여

먼저 재정착난민 아동·청소년들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UNHCR 재정착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2019년에 재정착이 필요한 난민 수는 2018년 보다 17% 증가한 1,400,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에 UNHCR이 35개국에 추천한 재정착 난민 수는 필요한 1,190,000명 중 75,200명으로서 2016년 163,200명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성인 재정착난민도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7년까지 평균 21년 동안 난민캠프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2018)

재정착난민의 특성을 보면 재정착난민들은 체제변화에서 오는 문화차이, 한국 정착 생활에서 겪는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사회적 차별 때문에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초, 중, 고학생들은 일상 생활에서 학교적응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가족이주’라서 가족 내에 가족지지는 좋지만, 한국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없어서 주변화(marginalization)를 겪고 있는 문화적 소수자이다. 이렇게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착난민들은 적응을 위해 입국 초기부터 적응교육을 받았다.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난민지원센터)에서 7개월 혹은 9개월간 사회정착 교육을 받은 후 정착지로 나갈 준비를 하고 그 기간 학령기 학생들은 일반 초·중·고등학교에 원적을 만들고 인천 공립다문화대안교(한누리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받았다.

난민센터에서 퇴소한 후 초등학생들은 국내 학교생활의 빠른 적응을 위해 퇴소와 동시에 정착지 학군 내 초등학교로 전학 조치하고 한누리학교의 위탁 교육을 수료하였다. 중고등 학생은 퇴소 즉시 원적 학교를 정착 예정지 인근 중학교 및 인문계 고등학교로 변경하되 한국어 실력 및 학교 적응 문제, 기숙사비 재원 마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1학기 혹은 2학기 동안 한누리학교 위탁 교육을 연장하였다. 유아는 정착 예정지 인근 (초등학교 병설이나 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입학하고 유치원비는 국비 지원을 신청하였다. 또한, 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방학 중에는 한국어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학기 중에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하여 방과 후 과제수행을 지원하였다. 난민 학생들의 학습권과 방과 후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인교육대학교와 ‘어울림이플림’이 협업하여 방학 중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한국어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다.

‘어울림이플림’ (2018)에서 실시한 인터뷰에 의하면 재정착난민들은 체제불안, 인권 문제와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국경을 넘었지만 기대와 달리 난민촌에서 적응 생활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 대부분의 재정착난민 학부모들은 ‘국경을 넘으며 그 당시 경험한 죽음에 대한 공포는 순간이었지만 난민촌에서 하루하루의 생활은 더 힘들었고 한국에서의 초기 재정착 생활도 쉽지 않았으나 지금은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며 재정착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하였다.

Ⅲ. 다문화교육 정책 제안에 대하여

인천 다문화교육 발전에 대한 발제자의 다섯 방안은 매우 실제적이며 인천의 상황에 맞는 시기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발제자가 제안한 몇몇 방안에 대해 재정착 난민 사례관리 담당자로서 토론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1. 중고등학교 다문화 교육

발제자는 초등학교 때 입학한 다문화 학생이 중고등학교로 진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보다 준비가 덜 된 중고등학교 다문화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문제제기하고 있다.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도 망설이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적성을 찾는 것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카렌족재정착난민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학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토론자도 중고등학교 다문화교육, 다시 말하면 다문화 학생들의 진학·진로 지도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림1>은 ‘어울림이끌림’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재정착난민 가정의 현황이다. 영, 유아 초등학교 학생들의 중고등학교 진학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지원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림1> 재정착난민 가정 현황

| 구분 | | 성인 | 영.유아 | 초 | 중 | 고 | 합계 |
|-----------|---------|--------|------|-----|----|-----|-----|
| 1기 | 4가정/25명 | 11명 | 5명 | 7명 | - | 2명 | 25명 |
| 2기 | 7가정/38명 | 17명 | 7명 | 4명 | 5명 | 5명 | 38명 |
| 3기 | 3가정/30명 | 11명 | 4명 | 8명 | 4명 | 3명 | 30명 |
| 합계 | | 39명 | 16명 | 19명 | 9명 | 10명 | 93명 |
| 부모+성인 39명 | | 자녀 54명 | | | | | |

발제자는 공립다문화대안교(한누리학교)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다국어 특성을 살린 특성화 고등학교의 직접교육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다문화 학생은 한국어중심의 교육을 오전에 실시하고 오후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에 토론자는 일반 고등학교에도 이런 과정(가칭 ‘언어중점교육과정’)이 개설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한다. 인천시 교육청이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교과중점학교(부개고 중국어, 인천세원고 중국어, 인천신현고 제2외국어)처럼 일반 고등학교에 국제적(동아시아관련) 직업을 가지거나 국제적(동아시아관련) 학과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다문화 학생들도 진학한다. 물론 진학한 학교에 한국어학습을 할 수 있는 한국어 학급 설치 및 지원이 필요하다.

인구구조 급변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 한 명 한 명 모두가 소중한 상황, 다문화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찾아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을 생각하면 다문화 학생들의 진로 교육은 중요하다. 또한, 이런 (가칭 ‘언어중점교육과정’ 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동아시아뿐 아니라 다국어관련 전공을 원하는 ‘비(非) 다문화’ 학생들도 다문화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상호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국제적인 감수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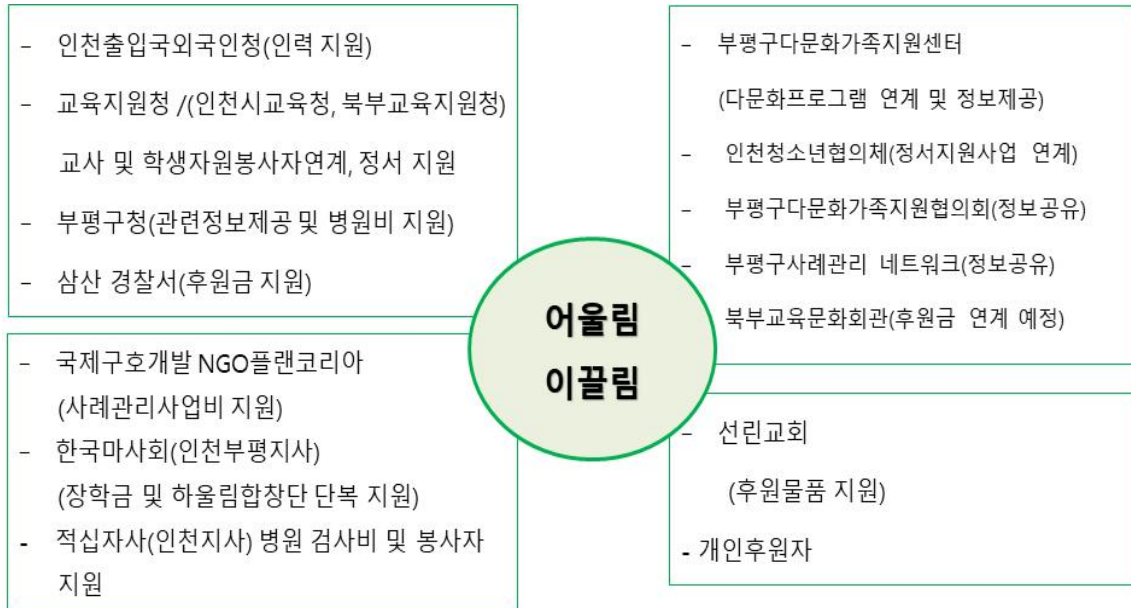
인천시교육청은 진로진학 종합 플랫폼인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을 설립할 예정(인천시교육청 2021년 역점정책)이라고 한다. 사이버진로교육원을 설립할 때 다국어(번역) 시스템과 결합하여 다문화 학생들에 맞는 진로검사, 직업체험 등의 기회 제공, 더 나아가 자신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진로교육이 다문화학생들에게도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다문화교육 우선정책지역(Zoned'education prioritaire) 지정 운영

발제자는 ‘학교-가정-지역사회’ 와 연계하여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다문화교육 우선정책지역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앞으로의 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이 중요하기에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발제자의 의견을 지지한다.

<그림2>는 카렌재정착난민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울림이끌림’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자원이다. 지역사회와 연계할 때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적 자원을 다문화 학생들 교육활동에 연계할 수 있고, 또 재정착난민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는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다. 언어권별로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발제자가 제기한 ‘언어권별 통합교육’ 도 이루어지기에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카렌재정착난민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면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

<그림2> 지역자원 네트워크 현황



발제자는 다문화 밀집 지역을 교육, 스포츠, 종교 등을 통해 다민족 간의 통합과 화합을 우선하는 지역 공동체로 만들고,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유형·무형의 공간은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적 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비다문화 학생들에게는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기회 제공 뿐 아니라,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 모두 동아시아(세계) 시민성을 길러 미래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토론자가 속해있는 ‘어울림이끌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비다문화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다문화교육 우선정책지역(Zoned’ education prioritaire)과 같은 유형·무형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3. 다문화 이해 교육의 관점 전환

발제자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다문화교육정책이 다문화라는 차별성에 기초하여 수립되었기에, 학생의 삶을 통째로 아우르지 못한 채 언어 능력, 학습 능력, 대인 관계 능력 등에 기초한 부분적 정책으로 접근해 왔다고 문제제기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다문화 학생들도 비다문화 학생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배경이 되는 나름의 가정환경을 지닌 학생으로 바라보고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1세기는 개별화, 다양화, 다변화 사회이고 우리 아이들은 이런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힘을 가진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야 한다. 토론자는 한명 한명의 아이들의 소중함을 바탕으로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발제자의 의견을 지지하는 바이다.

또한, 발제자는 지금까지 다문화 교육이 동화적 관점에 입각한 교육이었다면, 상호 문화적인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다문화 학생이 모국어와 모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비다문화 학생들도 다문화 학생이 속한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문화가 서로의 다른 점 찾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속에서 서로의 상호작용으로 보다 더 풍부해지는 상호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다문화, 비다문화 학생 모두에게 상호문화를 존중하는 경험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향상의 기회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동아시아시민, 세계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재가 될 것이다.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국제적 인재로 육성하는 등 다문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강점도 찾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이 시간은 정말 좋아요. 카렌어로 신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우리 옷도 입을 수 있어 좋고, 선생님이 우리 노래를 가르쳐주셨는데 정말 좋아요. 다음 수업 시간이 기다려져요.’ (학생 인터뷰)

‘카렌어 수업 시간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자부심, 단결력,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력 등이 향상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정말 대단하답니다.’ (어울림 이끌림 관계자 인터뷰)

‘어울림이끌림’에서는 카렌어 수업(교사: 학부모 중 선발, 내용: 읽기, 쓰기, 구전음악 등)을 주 1회, 2시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국어 및 모국 문화에 대한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많은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개방과 포용을 이야기하면서도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지닌 경우가 있다. 그러한 의견들을 타할 것이 아니라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낮섬’은 당연히 ‘불편함’을 가져온다. 그러나 ‘낮섬’을 넘어서면 더 넓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그 넓은 세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식개선, 상호문화존중 교육 등이 필요하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다문화학생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교육공동체에서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더 나아가 다문화 이해교육이 1회성, 전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

IV. 이야기를 마치며

미래사회는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서로 소통과 협력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의 집단지성으로 만들어가는 사회가 될 것이다. 발제자가 제안한 새로운 다문화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다문화, 비다문화 학생 모두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 나아가 재정착난민학생들과 같이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추가적으로 제안해본다.

첫째, 재정착난민 학부모들에게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사례관리 결과 난민학생들의 주된 어려움은 부모의 생활에 연동되어 있었다. 취업한 부모들은 주 6일 근무와 한국어 수업을 병행해야 한다. 심지어 어린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은 더 많은 생계비 지출로 추가 근무를 하기에 한국어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 보니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결국 저임금 노동으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는 자녀에게 빈곤 대물림이 예상된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한국어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재정착난민 학생들의 인생설계를 위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난민학생들의 경력과 꿈에 기초하여 구조, 협력, 필요와 관련해서는 제도권(학교) 밖에서 재정착난민을 수용할 의지가 있는 개인이나 NGO들을 참여시켜 진로 및 진학 이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셋째, 지자체에 재정착난민 관련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 재정착 난민들이 정착해야 할 곳은 중앙이 아닌 인천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업무가 지방행정 업무라는 것이 명시되어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언한다.

-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 지자체 ‘난민지원 조례 제정’ 등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해서 재정지원 및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난민업무가 중앙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의 행정업무도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재정착 난민을 수용하는 예산 할당 등의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재정착난민 아동 청소년은 사회적 고립이 가중되지 않고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필요함. 즉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 할 수 있는 난민센터 설치가 필요함.

MEMO

MEMO